국내
마감시황

2026.3.18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전쟁 민감도 낮아지며 상승

기관, 코스피 3.1조원대 순매수
반도체, 금융, 원전주 상대적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925.03pt (+5.04%)	1,164.38pt (+2.41%)	888.57pt (+5.67%)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84.40 원 (-4.0 원)	3.6530% (-3.9bp)	6,808.50pt (+0.52%)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8,711 억	-3,919 억	+2,159 억
외국인	+8,885 억	+4,979 억	+17,086 억
기관	+31,092 억	-276 억	-19,63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이란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낮아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과도한 우려보다는 펀터멘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GTC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간 내일 새벽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주가 특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하며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 수급이 대거 유입되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이날 KOSPI는 5.04%, KOSDAQ은 2.41%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6.1조원, KOSDAQ은 약 14.3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9천억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에서 약 3.1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대을 재돌파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며 원전과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자동차, 전력기기, 금융, 2차전지주가 올랐습니다. 반면, 전쟁 이후 상승했던 방산주에서 차익실현이 이어졌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대우건설(+22.79%), HPSP(+13.51%), 효성중공업(+7.27%)이 올랐고, 한국항공우주(-3.81%), LG유플러스(-2.27%), 넷마블(-2.01%)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